

安東金氏族譜序

我金之系乎安東已過八百年
而未始有譜、成於今矣 始

祖曰太師自太師至公須副正

中間幾世不記其名位或云初

未嘗有較疑則傳疑慎也自公

須副正以至于今凡二十一世
而自其十世別之為十一派者
依然列書異姓止於二世曾孫
則注其下按文可見矣先君蓋
嘗留意於此草定凡例而有未
填肩乞之編摩實未成規而為

之只異姓世數稍多詳畧耳蓋
譜之不立或冥昧其源流譜之
不明又混錯其親疎是譜也以
其歷成之故校閱既精填注無
訛本支中表秩時有條而不紊
允為金氏之大譜自此至所不

知續之繼書只依此例已矣昌
翕竊觀之世家之譜或有專
心於此學童習而白紛矣夷
考其正倫篤恩則邈乎罕聞如
只按譜而指示曰某為昭某如
穆某為吾宗某為吾戚而已至

其疾而病痺了不相與善惡修
悖者自為心則亦焉用修譜五

哉所貴乎修譜者豈不以尊祖

而收族乎尊之收之者所謂上

治旁治也治之如何必也象率

而仁撰之方可會義而歸一詩

不云乎母念爾祖聿修厥德惟
我太師克權集勲石碣之軒天
地固不可尚已矣其勛躬盡沒
之也雖望徵於家乘典刑所在
莫不靜拙守澹約是秉為士
者必華門圭竇受顯去松丘壑

雲霄的冬有一箇規模寧可不
知其所以自乎曾祖考清陰先生
有待以八百多清白為隆於一
時常礪至哉訓也與萬子孫
所宜服膺而勿失也凡我同僖
之人居住丘墓之或京或鄉遠

近老幼之相面不相面必且所以合敬同愛恩雖未周而名正其倫所念名先德所存老祖訓雖復興降俗薄利慾橫流而渾然端厚不失其先守則便是矣身而一心千里而一室且將千

世如一日庶無愧於同譜矣

崇禎甲申後七十六年己亥十

八代孫昌翕謹述

如譜來三例先生任斯序承
自公濟誼主其事將入梓而
遇辛丑之變後四年乙巳宗
人屬用按俾補軼錄板又二
年而工告訖蓋自先王考文
谷先生草創而言則首尾上

十年再閱大禍而乃刊行何其艱也嗚呼觀於此譜則不但明源派昭穆門祚之興替係乎此是之污隆去志可以知矣凡我同宗後承曷不思其故而有所自勗哉序文未嘗自筆右宗人使信然書咸序之昔遂敢附焉如此云

안동김씨족보

우리 김씨의 계통이 안동에 이윅지가
이미 팔백 년이 지나 되었거늘 족보가 있
아니 하다가 이제 이르어 십 시조는 세
조로부터 공조부터 이르기까지
조간 별세하고 횡자와 벼슬을 기록하
지 못하였으므로 최은부터 배진
이
있다고 하니 의심으로 의심을 할 것

(-1-)

응상가능도리공주부정옹이로되나지금
까지우르티십일대에십백로부러나고
십일대가되니각각차례대로편지하되
다름형응이때에그치고중은그아래
에주로적었으나본문을보면알것이라
천근게서일직이죽보에뜻을두실번
례를형하시었으니책우지못한곳이있
더니지금책을볼때천근의해충이신

처음부터 발을 들어 이르되 다 만다루고
내수에 있어서는 상제하고 강박한
이 있다. 내 체 즉 보의 체제가 되지 못하면
홍그 내 천을 알 수 없고 즉 보의 내용이 평
화치 못하면 또 그 천한과 화한 것이
홍잡한 것이 다. 이 즉 보는 이르어 지
기를 내지 하였으므로 정이 정하고
그 내기에 그릇된 것이 없어 중지와 정리가

조리있어글린하지아니하니질서를
리잇씨의해보가될지각이로부러후세
능이이어서후보하되다만이정례를의
방할따름이다창후이이제집집마
즉보가있음을보니후보학에정심하
기를어려거부너후기에이른자가있
은다그은기름발치고은의를로라
함을상고하면막연히들음바가없고

나만족보를보아소가속이되나구
리종다가되구구구구이되나구
말할별이구구구구과가양에이러
거는거로과제치아나하고착한거과
악한거과잘한거과악한거에
각기스스로마음으로구구구구해
구어하리오구구구구구구구구
어찌조상을증정하리종족을거는
데

있지 않음의 뜻을 이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니
로고로게 하고 잘못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니
고로게 함은 반드시 의로써 하는 것이니
칙하여 마땅히 만물을 아끼는 것으로
라오게 하는 것이니 시에 이르러 나의
상을 생각하지 않음이 드물어 그 뜻을
각오하야 할 것이니 사색을 절제하고
흥을 잘 하신 것이니 이 것이 천지의

우르르하시나 더말듯한 것 없으나 그음을
구그러이 하사 뒤를 드아주실드능 비록가
능을증거하지않더와드정정히있는바
에 풀함을지키고정정함을주장하지
아니함이없으나 천비됨자능각길은과
나루에있고천년한자능은에있어드
구학바갈이여기매적확히이항가지
추오가있으나 어찌그자음을알지못

하리요 중으로 청양 청산에 다닐 만년
 청백으로 써 일시에 천보 다 놀다 하였
 은다 지극하나 가르치심이 어찌 세 자는
 이마 땅히 북응하여 이르지 마를 것이 다
 우릇은 죄와 중보하는 사림은 거족와 구
 조가 정행에 있고 조우가 처를 만나고
 웃만 남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아 공
 정하고 같이 사랑하기를 생각하면 비록

양해고로지듯하오도양기을바르게하리
니선녀을생각하노조양을바를노되
비록말세가되어풍우이박하노양은
최후를지다조양면히나칭하고조라
거니로지키는바를이치지양을기이
일망우이함다우이되칭리가함집
갈이되어서장차형대이하로갈이
이더거의양보하노제부려이
이없을것

-(二〇)-

이

능청갑신(정축)을 비롯하여 그 해 십일을 능
창(정축)을

즉보가 최응이(정축)의 사(정축)생(정축)에
거(정축)을 지(정축)고(정축)공(정축)제(정축)이(정축)고(정축)일(정축)을
주(정축)창(정축)하(정축)시(정축)와(정축)장(정축)차(정축)책(정축)을(정축)내(정축)려(정축)가(정축)신(정축)인(정축)
의(정축)변(정축)을(정축)만(정축)나(정축)고(정축)그(정축)뒤(정축)사(정축)년(정축)을(정축)사(정축)에(정축)중(정축)인(정축)을(정축)
이(정축)응(정축)전(정축)에(정축)세(정축)부(정축)락(정축)하(정축)여(정축)배(정축)진(정축)거(정축)를(정축)제(정축)외

박아서 또 이념 망에 글을 마치니 제 체 성 왕
고 공 공 천 생 제 처 시작 하 신 것으로 말함
하 명 스 미 응 스 년 에 두 번 제 화를 지고
이 에 가 강 하 나 어 켜 구 리 어 천 을 자 늘 르
과 이 족 보 를 보 면 과 망 나 천 과 그 속 이
밖 천 지 를 별 아 나 다 스 년 의 흥 체 세 드 의
정 의 에 잘 천 응 을 알 고 이 다 스 년 의 리
동 중 과 흥 응 을 어 켜 구 리 고 생 각 하

여시기를 힘써지아하리여저양을의친
이친친를쓰지못하시여기에공인이신
정이를하음저사하나능조을창간하
여남을양을되이같이이남이남이
북한나

이제즉보물을거름나다저양을의친
이친친를쓰지아하리여저양을의친
하음저사하나능조을창간하

安東金氏世譜卷首

首編

始祖

金宣平

新羅末以古昌郡城主佐高麗太祖破甄萱策功爲三韓壁上功臣三重大臣太師亞父享安東府司廟退溪李滉撰記廟庭碑後孫判書義淳按本道時撰并書○墓安東府三十里西後古台庄里天燈山左麓後失其傳 仁祖丙寅按輿地勝覽所載築壇子坐以祀後孫大提學昌協記有表 神道碑後孫祕書丞寧漢撰後孫同敦寧容鎮書後孫判書宗漢篆

一世

習敦

公須副正自始祖至府君其間世系見佚或云初未嘗佚

二世

子呂基

戶長

三世

子南秀

戶長正位○配安東曹氏父戶長正朝碩材

四世

子熙

舊諱瑄一子

子呂重

選軍別監

子塏

侍御史

子錄

一子

製述業進士升仕郎衛尉注簿同正一云奉翊大夫版圖判書一云慶平宮錄事追贈版圖判書今以典農正府君戶口所載從之○配安東權氏父戶長公茂祖兵正世衡曾祖權知戶長別將均亮外祖戶長金溫本安東 見二

閨門祇侯 見四